

예배 및 모임안내

2019-36호 2019년 09월 08일

예 배	일 시	장 소
새벽 기도회	토요일 오전 7시	예배당
주일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예배당
주일학교 예배	주일 오후 1시35분	교육관 5번 교실
청년 기도모임	월 1회	교육관 7번 교실
말씀 나눔 모임	매월 셋째 주일	교육관 5번 교실
성경 읽기 모임	매 주일	교육관 5번 교실
구역 모임	월 1회(구역 별)	구역 별 결정

주일 예배 봉사위원

	09. 15	09. 22	09. 29
대 표 기 도	박재기 집사	김영희 권사	황희순 집사
성 경 봉 독	박재기 집사	김영희 권사	황희순 집사
헌 금 위 원	김영희 권사	황희순 집사	유미경 집사
안 내 위 원	김영희 권사	김영희 권사	김영희 권사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소식

1. 성경 읽기 -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채우세요 (고전12~16장, 고후1~13장)
2. 천막 전도집회 - 오전 10시 30분 아브라함 교회와 2시 자체 예배 드립니다.
3. 정기 제직회 - 친교실 정리 후 정기 제직회로 모입니다(5번 교실)
4. 목회자 모임 - 10일(화) 12시 함부르크 한인교회(김광철 목사 시무)
5. 교우 등록 - 한덕기, 배진아 성도 가정, 추문경 자매, 김대형 형제. 환영합니다.
6. 북독 청년연합수련회 : 10월2일(수)~4일(금) 함부르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7. 나눔의 시간 - 전도집회 기간 동안 7번 교실에서 모입니다.

교우동정

생일	김복자 은퇴권사(8일) 김효종 집사 (11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십 일 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합계(Euro)	

기도제목

1. 육체적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서
2. 천막집회(8월 30일(금)~9월15일(주일)를 위하여
3. 김선태, 장보경 협력선교사(성진, 예린, 주 허트번, 헝가리) 사역을 위하여
4. 전도, 선교, 구제에 힘쓰는 한민교회가 될 수 있도록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행복을 나누는 건강한 교회(삼하7:21~29)”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목사관 : Yperner Str. 7 28259 Bremen
☎ 0421/257 3831 | 0176-7242-4297(Mobile)
E-Mail : josefrhee@hanmail.net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 *송 영 Chor 반주자
- *기 원 Altargebet 정용현 안수집사
- *찬 송 Gemeindelied 14장 다같이
- *성서교독 Wechsellesung 교독문 63번 다같이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새번역) 다같이
- 찬 송 Gemeindelied 264장 다같이
- 기 도 Gebet 김효종 집사
- *성경봉독 Predigttext 레 12 : 1 -8(구p163)..... 김효종 집사
(3.Mose 12:1-8)
- 설 교 Predigt 산모의 정결을 통한 교훈 이상호 목사
- 찬 송 Gemeindelied 266장 다같이
-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314장(1, 2절)..... 박재기 집사
-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 *폐회찬송 Schlusslied 54장 다같이
- *축 도 Segnungsgebet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반주자

***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Bitte erheben Sie sich)**

성도의 교제 친교질

너무나도 비싼 대가

한번은 부모님이 잡화점 앞에 자동차를 세우고 우리에게 물건을 사게 하셨습니다. 나와 학교 친구 두 명, 그리고 다섯 살 배기 여동생이 자동차에서 내려 물건을 사기 위해 상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상점 문을 나왔을 때 여동생 손에는 넥타이핀과 색연필이 한 가득 들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에 타자 부모님이 서로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시더니 잠시 후에 어머니가 여동생의 손을 잡고 자동차에서 내리시더니 가게로 들어가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부모님은 여동생에게 돈을 주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날 여동생은 도둑질을 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훔친 물건들을 챙겨서 귀엽고, 예쁜 꼬마 도둑의 손을 잡고 가게로 돌아가셨습니다. 당연히 나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가게 주인이 너무 화가 나서 용서하지 않고 끝내 신고를 한다면? 그래서 법정에서 어린 동생을 감옥에 보낸다면? 물론 실제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가게 주인은 여동생을 용서해주었고, 우리들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법정은 어떻습니까?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의 죄를 그냥 눈감아 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본성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죄를 넘기실 수 없습니다(합1:13) 하나님은 공홀이 풍성하신 분이시지만, 죄는 우리와 그분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주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죄부터 다스려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참으로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터무니 없이 비싼 대가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비싼 값이었지만, 하나님은 당신과 나의 가치를 그만큼 높게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변의 진리 / Josh McDowell, Sean McDowell
(JMM(Josh McDowell Ministry 설립자))

* 우리가 장막을 치는 곳마다 하나님의 제단을 세워야 한다. - 매튜 헨리 -